

## 무한진화 AI 생태계 “한국은 쫓기는 토끼”

52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

AI 기술력 아직 세계 10위권 밖  
강점 있는 헬스케어 등 집중을

중국 30분의 1인 개발자 늘리고  
물적 인프라, 데이터도 확충해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술은 선진국 대비 75%, AI 하드웨어 기술은 65% 수준’.

지난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짚어본 한국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다.

알파고(구글)와 왓슨(IBM)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이 멀찍이 앞서가는 가운데 한국도 추격의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결정하면서 “선진국 대비 75%인 지능정보(인공지능 등)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려 산업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인공지능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한국 사회를 흔든 이른바 ‘알파고 쇼크’ 이후 1년9개월. 그간 정부·기업의 혼란은 있었지만 기술 발전이 적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 SK 텔레콤·네이버의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전에 없던 의미 있는 산업적 결과물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끌고 있는 국책 인공지능 프로젝트 ‘엑소브레인’도 2023년을 목표로 5년째 진행 중이다. 엑소브레인은 IBM 왓슨처럼 자연어를 처리하는 한국어 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지

난해 11월 EBS ‘장학퀴즈’에서 사람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할 만큼 고성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로 ‘선택과 집중’, 즉 투자의 내실화를 꼽는다. 국내 인공지능 투자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만큼 확실한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공지능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엑소브레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는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세계에서 종합 10위권 밖이지만 1·2위인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헬스케어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인공지능 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족한 인적·물적 인프라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20만 명이 안 된다. 미국의 20분의 1, 중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이들의 평균 임금은 미국의 50~60% 수준일 만큼 열악하다. 기업은 개발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지금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빅데이터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기계학습(machine-learning)을 하는 21세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데이터가 개방돼 많이 축적될수록 인공지능도 그만큼 발전한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무섭게 발전 중인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선두권을 따라잡지 못하면 생태계 바닥에서 쫓기는 ‘토끼’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 관계기사 6면

## 경조사 봉투에 5만원만 넣으세요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내년 설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금의 경우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었다. 다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금·화환을 같이 할 경우 5만원씩 할 수 있다.

이날 전원위는 공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 전원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위로서 지난 달 27일 부결했던 걸 보름 만에 반복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듯, 전원위는 “범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첨부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40일)와 규제 심사기간(15~20일)을 최대한 단축, 내년 설(2월 16일) 이전에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 관계기사 4면



성화 봉송하는 KAIST 로봇 KAIST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탐승형 로봇 FX-2가 11일 평창 겨울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과학 꿈나무 이정철(14) 학생이 대전 KAIST에서 FX-2를 조종해 성화 봉송을 하고 있다. FX-2는 탑승자의 움직임에 따라 작동되는 데이터 암(data-arm)을 적용했다. 이날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도 성화 봉송에 참여했다. ▶ 관계기사 B1면 사진공동취재단



##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첫 절대평가 영어 1등급 10%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번 수능 영어 1등급은 5만2983명(10%). 서울 11개 대학 입학정원보다 1만8000명 많다. 국어·수학도 지난해보다 1등급 비율이 늘었다. 탐구영역 성적이 대입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10면



## “비트코인 거래 금지 등 규제 검토”

논란의 암호화폐 ▶ 8면

날씨 ▶ 32면, 구독·배달 문의 1588-3600

RAMADA  
HOTEL & SUITES

# 평창 10년 임대완로 생활형 레지던스 공급공고

### ■ 건축 개요

사업명	평창 라마다 레지던스		
사업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245-36외 1필지		
대지면적	32,296.00㎡	연면적	51,649.45㎡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4층	공급호수	678실

### ■ 청약 및 계약 사항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제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이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1가구 2주택 해당없음)

### ■ 청약·계약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모델하우스에 비치) · 본인 도장 또는 서명(배우자의 경우 청약자의 도장지침)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점서류 추가 제출 (동일세대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계약신청시 (배우자 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분양 조건

· 10년 임대 계약 완료 / 중도금 무이자 대출 / 월세 26㎡-113만원 (용자세) / 39㎡-165만원 (용자세) / 1가구 2주택 전매제한

### ■ 기본옵션 무상제공

품목	천정형에어컨, TV, 빌트인냉장고, 전자레인지, 옷장 등 일체
----	------------------------------------

### ■ 청약금 입금계좌

청약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국민은행	956801-00-000582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상기 입금계좌로 선착순 중·호수 마감(미계약시 전액환불)				

### ■ 분양대금 납입절차

계약금	중도금 무이자	잔금
10%	40%	50%

### ■ 청약 및 계약 장소

청약·계약	신청장소(모델하우스)
총·호수·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1

문의  
공휴일  
정상근무

02) 6339-1433

※ 상기 수익보장은 아시아신탁(주)과 무관합니다.

시행사 W (주)한원 P.L. Partners 시공사 (주)영우건설 (주)영우토건 운영사 (주)신하에이치엔 신역사 A 아시아신탁